

# “올해 연금계리사 인증제도 안착위해 최선”

## 계리사 상품별 실무검비 중요...금융전문가로 인식 높일수 있는 사업 전개

“보험계리사 발전을 위해서 업무영역 확대와 위상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계리사회는 올해 회원관리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교육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려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고 연금계리사 인증제도의 안착에 전력을 쏟겠다.” 박상래 보험계리사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리협회와 계리사 전문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는 이필규 본지 회장이 진행했다.

◆이필규 회장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각각 상품별로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 계리사의 전문화가 돼 있길 바란다.

◆박상래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생명, 손해, 연금보험 등으로 계리사 자격을 구분해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0월 국제계리사회(IAA)에 가입하면서 2014년부터 시험제도가 IAA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더불어 국내에선 시험제도가 아니라 시험이 상품개발, 마케팅, 보험료 산출, 준비금 평가,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리사회 회원 1815명 중 정회원인 954명이고 분야별로는 각각 생명보험 466명, 손해보험 320명, 컨설팅 61명, 금융감독 등 유관기관 65명, 공제 기관 21명, 은행·증권 7명, 학계·기타 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계리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시험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생보사 임직원을 대부분이 계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시 검토한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는 등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실무와 이론이 부합된 계리사의 전문성을 통해 계리사의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 한다.

◆박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학생 때 계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자격시험을 세분화해 이론 및 실무 등을 동시에 겸비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연금계리사 인증제도를 별도로 준비해 올해부터 시험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계리사에 대한 확인과 인정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선 자선운영과 위험관리 관련 계리사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박 회장은 외국계 경우 투자 부문과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계리사의 역할이 높습니다. 국내 외국사들의 경우도 대부분 CFO는 계리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품개발이나 계리분야에 많이 근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리스크관리 분야에선 경영 전반적인 관

점에서 분석이 필요해 이미 많은 계리사가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분야도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위해서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과 자금조달 코스트 분석 등 경영 전반적인 틀에서의 의사결정이 불가피한데 이같은 업무와 연계 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이 계리사의 역량을 확대할 분야입니다.

◆이 회장은 선진국에선 계리사들이 고객유치 등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업계는 어떤지요.

◆박 회장은 선진국과 단순히 급여와



박상래 보험계리사회 회장은 “보험계리사들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문화와 자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 전반 의사결정 참여 계리사 역량 확대-공정성·투명성 기준강화한 윤리규정·소통위한 교육 노력-자동차보험 상당한 손실 발생해 보험료 산출 개선 필요-연금계리사 인증제도 마련하고 1월 27일에 인증서 발급

대우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직업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리사가 2013년 1위, 2014년 4위로 상위 5위권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5위권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계리사회와 계리사들이 노력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계리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정금액의 수당 또는 승진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별 역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리사의 대우와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전문성 있는 계리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리사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계리사들이 일체의 동향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계리사회에선 어떠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박 회장은 계리사회에서는 연수규정을 제정해 회원들에게 매년 30시간의 교육을 이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 교육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세미나, 연수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전문가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16개의 강의를 개설했고 19번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성과 더불어 중요해지는 공정성, 투명성 기준을 강화한 윤리규정과 다른 분야와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등 소통을 위한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해외에서 받은 계리사 자격증을 국내에선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박 회장은 현재 국내 보험사엔 미국, 영국 등 해외 계리사 자격증을 갖고 활동하는 임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외국계 보험사와 국내 대형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격증 보유와 더불어 개인적인 역량이나 외국 근무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계리사회에선 이같이 외국 계리사 자격을 보유한 명망 있는 분들을 명예회원으로 임명하고 각 교육 및 세미나의 강연자로 초청, 선진국 사례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그렇다면 국내 계리사 자격 보유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 회장은 국내 계리사 자격증 소유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일부 국내 계리사가 경쟁력을 갖고 근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리제도 글로벌화와 어학 능력 향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계리사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계리사의 외국 근무 확대는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특약, 연금과 보장성, 손해보험의 자동차, 의료손신평험의 보험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회장은 현재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성에 대해서 보험사와 감독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각 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국에서는 큰 틀에서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는 표준이율, 표준위험률, 표준신계약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종류별로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모두들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상이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자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박 회장이 밝히는 계리사회의 올해 주요사업

## IFRS 2단계 도입 준비 공조체제 구축

### 회원 연수프로그램 늘리고 국제교류도 활성화

계리사회는 지난 2013년 10월 국제계리사회와 정회원 가입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계리사의 위상 강화와 함께 보험·계리업계의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변화에 대한 촉박은 사고와 경영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계리사들은 우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의 함께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하며 기존의 단순한 상품 및 계리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같은 계리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계리사회는 전문성 향상과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주요 사업으로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2) 도입 준비 ▲연금계리사 인증제도 정착 ▲회원관리 강화 및 제고

▲연수프로그램 지속 강화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업계에 대변적인 IFRS 2단계 도입 준비를 위해 국제계리사회 및 금융당국 등과 공조하고 업계와 협업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미래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계리사의 노력과 역량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IFRS 2단계 도입, 현금흐름법식의 정착, 솔벤시 II 등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검토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장과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가진 계리사들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계리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회원에 대한 관리 및 연수프로그램의 강화, 내부 위생 및 각종 계리사의 행사의 내실화 등을 통해 한해의 계리사의 활동영역 확대와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계리사의 노력과 역량을 대해 회원뿐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계리사의 모습을 알리어나가겠다.



박상래 회장(오른쪽)이 이필규 본지 회장과 계리사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회장은 연금계리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도는 무엇인가요. 아울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 회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리사회는 기업의 '종업원급여 평가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준비해 연금계리사 인증제도를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에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또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연금계리사 심의위원회에 공인회계사회와 상정회계사의 회로부터 위촉받은 위원들을 포함시켰으며 전문인력을 확보 및 양성할 수 있도록 교재 발간, 실

무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보험계리사의 명칭을 공인계리사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나 의미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회장은 보험계리사는 최근까지 주로 국내에서 보험사를 중심으로 근무했으나 현재는 연금분야 등 보험사 이외에 타 금융권에도 종사하는 금융전문가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진행할 것인입니다. 금융감독, 금융위원회 등 남북 발전하는 금융시장의 상황 및 국제 회계기준, 새로운 리스크 경영개념 도입 등으로 규범의 변화에 따라 보험사 외에 보험계리사라는 명칭은 계리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금융인력 육성을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정종진 기자

# 에이원손해사정(주)

## 보험심사전문회사

●

●

●

▶

# That's it!

## “손해사정 선도기업 에이원손해사정”

[ 전문분야 ]
인보험 현장조사
인보험 서면심사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조사
계약심사(방문적부, 콜적부)

13th Fl. IS-BIZ TOWER, 23 Seonyuro 49-gil, Yeongdeungpo-gu, Seoul 150-866, Korea

Tel. 82-2-758-4972 Fax. 82-2-779-7793 http://www.aoneis.com

A1 Adjustment & Survey Co., Ltd.

ISO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